

**뉴사우스웨일스,  
신축 주택 공급 앞당길  
패턴북 디자인 공모전 개최**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attern-book-design-competition?language=ko-KR>  
<https://www.planning.nsw.gov.au/government-architect-nsw/housing-design/pattern-book-of-housing-design/pattern-book-design-competiti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신축 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패턴북 디자인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패턴북(Pattern Book)이란 건축의 디자인부터 설계 요소, 개발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 할 수 있다. 주는 신축 주택에 대한 패턴북을 개발함으로써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일관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완공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이후 승인된 패턴북 디자인을 사용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생계비 부담의 주된 원인은 주거(주택)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유입 인원보다 두 배나 많은 젊은 인구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떠나고 있다. 주는 신축 주택 패턴북을 통해 더 빨리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공모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는 저층·중층주택으로 한정된다. 저층주택에는 1~2층 높이로 테라스하우스와 저층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중층주택은 3~6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심사위원단은 거주하기 좋고 짓기 쉬우며, 복제가 가능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되 지역사회와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디자인일 것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선발된 디자인은 실제로 주택 건축에 적용되어 뉴사우스웨일스주 내 다섯 개 부지에서 시공된다. 공모전은 7월 시작되어 9월 2차 심사를 마친 상태로, 올해 연말 수상자가 발표되어 2025년 실제 주택 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shutterstock